

## 전공의 수련환경 심의과정에 전공의 참여 2배 늘린다

-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 2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6월 2일(화) 18시 30분 대한병원협회(서울 마포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 (전공의법 제15조)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된 첫 위원회이다.

이번 위원회는 제3기와 비교해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15명\*으로 구성되면서 수련 관련 심의과정에 전공의 당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4명,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 3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 당연직 1명

이날 제4기 위원회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인사말을 전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호선과 2026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장 호선 결과 경북대학교 양동현 병원장이 제4기 수련 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4기 위원회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전공의 수련의 질적 고도화와 운영체계(거버넌스)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 수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수련병원 현장과 전공의 당사자, 의학 교육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위원회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수련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수련 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개요**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방영식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최단비 (044-202-2435)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26. 6. 2.(화), 18:30~
- (장소) 대한병원협회 14층 중회의실 (서울 마포구)
-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등
- (논의 안건) 위원장 선출, 2026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일정 등

**<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현황 >**

추천 단체	성 명	소 속	직 위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안희배	동아대학교의료원	병원장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
	김한수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박지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전공의
	김동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한의학회	오승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용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도경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문가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복지부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

□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18:30~19:30('60)	•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안건 논의	
19:30~19:40('10)	•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말	보건복지부 제2차관
19:40~	• 기념촬영 및 마무리	